

오늘의 주요기사

2021년 09월 13일 (월)

순서	제 목	매체	카테고리	페이지
1	전주대 오인교 학생, 역사문화콘텐츠경진대회 최우수상	전북일보	사람	1
2	오인교 전주대 학생, 역사문화 콘텐츠 최우수상	전북도민일보	사람들	2
3	전주대 오인교 학생, '역사문화콘텐츠 연합경진대회' 최우수상	전북금강일보	문화	3
4	전주대팀, 역사문화콘텐츠대회 최우수	전민일보	사람	4
5	독립을 위한 안동인의 삶 담아내...값진 결실	전북연합신문	교육	5
6	전주대 오인교 학생 '최우수상'	전라매일	교육&문화...	6
7	역사문화콘텐츠 연합경진대회 '최우수상'	전주일보	종합	7
8	전주대, 역사문화콘텐츠 연합경진대회 수상	전주매일	경제·사회	8
9	전주대 한국고전학연구소 '공존의 인간학' 제6집 발간	전민일보	사람	9
10	전주대 한국고전학연구소 '공존의 인간학' 제6집 발간	새만금일보	종합	10
11	전주대 한국고전학연구소 '공존의 인간학' 제6집 발간	전주매일	경제·사회	11

확대비율: 100%

全北日報

2021년 9월 13일 월요일 014면 사람



전주대 오인교 학생, 역사문화콘텐츠경진대회 최우수상

전주대학교 역사문화콘텐츠학과 오인교(21학번) 학생이 최근 안동대학교 LINC+사업단과 경북콘텐츠진흥원이 공동으로 주최한 ‘역사문화콘텐츠 연합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번 경진대회는 주최 도시인 안동시의 지역 문화유산을 활용한 콘텐츠 제작을 통해 지역 홍보를 목적으로

열렸다.

오인교 학생이 속한 대학연합팀은 이번 평가에서 일제강점기 안동의 독립운동과 독립운동가의 삶을 광고 ‘야놀자’ 방식을 활용해 재미와 감동을 줬다는 평가를 받았다.

오인교 학생은 “독립을 위한 안동인의 활동을 영상에 담을 수 있어 값진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이강모 기자

확대비율: 120%

전북도민일보 2021년 9월 13일 월요일 015면 사람들

오인교 전주대 학생, 역사문화 콘텐츠 최우수상



전주대학교 역사문화콘텐츠학과 오인교 학생이 최근 안동대학교 LINC+ 사업단과 경북콘텐츠진흥원이 공동으로 주최한 ‘역사문화콘텐츠 연합경진대회’에서 타 대학교 팀원들과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오인교 학생이 속한 대학연합팀은 “일제강점기 안동의 독립운동과 독립운동가의 삶을 광고 ‘야놀자’ 방식을 활용해 재미와 감동을 주었다”라는 평가를 받았다.

이휘빈 기자

확대비율: 100%

전북금강일보

2021년 9월 13일 월요일 015면 문화



전주대학교는 역사문화콘텐츠학과 오인교 학생이 최근 안동대학교 LINC+사업단과 경북콘텐츠진흥원이 공동으로 주최한 ‘역사문화콘텐츠 연합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전주대 역사문화콘텐츠학과 오인교 학생(21학번)이 속한 대학연합팀은 ‘일제강점기 안동의 독립운동과 독립운동가의 삶을 광고 ‘야놀자’ 방식을 활용해

재미와 감동을 주었다’라는 평가를 받았다.

최우수상을 받은 오인교 학생은 “2박 3일 동안 타 대학 학생들과 한 팀을 이뤄 안동의 독립운동을 알리는 콘텐츠를 제작하는 과정은 너무 힘들었지만, 독립을 위한 안동인의 활동을 영상에 담을 수 있어 값진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기동취재부 gkg8@dumnet

확대비율: 150%

전민일보

2021년 9월 13일 월요일 015면 사람

전주대팀, 역사문화콘텐츠대회 최우수

전주대학교(총장 홍순직) 역사문화콘텐츠학과 오인교 학생이 최근 안동대학교 LINC+사업단과 경북콘텐츠진흥원이 공동으로 주최한 '역사문화콘텐츠 연합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번 경진대회에서 오인교 학생(21학번)이 속한 대학연합팀은 "일제강점기 안동의 독립운동과 독립운동가의 삶을 광고 '야놀자' 방식을 활용해 재미와 감동을 주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김영무기자

확대비율: 100%



전주대학교는 10일 역사문화콘텐츠학과 오인교 학생이 최근 안동대학교 LINC+사업단과 경북콘텐츠진흥원이 공동으로 주최한 '역사문화콘텐츠 연합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독립을 위한 안동인의 삶 담아내... 값진 결실

역사문화콘텐츠 경연대회
전주대오인교학생참가
최우수상 수상 '영예'

전주대학교(총장 홍순직)는 10일 역사문화콘텐츠학과 오인교 학생이 최근 안동대학교 LINC+사업단과 경북콘텐츠진흥원이 공동으로 주최한 '역사

문화콘텐츠 연합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번 경진대회는 주최 도시인 안동시의 지역 문화유산을 활용한 콘텐츠 제작을 통해 지역 홍보를 목적으로 열렸다.

오인교 학생(21학번)이 속한 대학연합팀은 "일제강점기 안동의 독립운동과 독립운동가의 삶을 광고 '아놀자' 방식을 활

용해 재미와 감동을 주었다"라는 평가를 받았다.

오인교 학생은 "2박 3일 동안 타 대학 학생들과 한 팀을 이뤄 안동의 독립운동을 알리는 콘텐츠를 제작하는 과정은 너무 힘들었지만, 독립을 위한 안동인의 활동을 영상에 담을 수 있는 값진 시간이었다"라고 말했다.

김현표 기자

hiphopy@naver.com

확대비율: 100%

전라매일 2021년 9월 13일 월요일 005면 교육&문화&체육



전주대학교는 역사문화콘텐츠학과 오인교 학생이 '역사문화콘텐츠 연합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였다고 10일 밝혔다.

전주대 오인교 학생 '최우수상'

'역사문화콘텐츠 연합경진대회'에서

전주대학교는 역사문화콘텐츠학과 오인교 학생이 최근 안동대학교 LI NC+사업단과 경북콘텐츠진흥원이 공동으로 주최한 '역사문화콘텐츠 연합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였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경진대회는 주최 도시인 안동시의 지역 문화유산을 활용한 콘텐츠 제작을 통해 지역 홍보를 목적으로 열렸으며, 코로나19로 인해 예년에 비해 참가 대학과 참가자가 줄었음에도 그 열기는 더욱 뜨거웠다.

특히, 전주대 역사문화콘텐츠학과 오인교 학생(21학번)이 속한 대학연합팀은 "일제강점기 안동의 독립운동과 독립운동가의 삶을 광고 '야놀자' 방식을 활용해 재미와 감동을 주었

다"라는 평가를 받았다.

최우수상을 받은 오인교 학생은 "2박 3일 동안 타 대학 학생들과 한 팀을 이뤄 안동의 독립운동을 알리는 콘텐츠를 제작하는 과정은 너무 힘들었지만, 독립을 위한 안동인의 활동을 영상에 담을 수 있어 값진 시간이었다"라고 말했다.

한편, 전주대학교 역사문화콘텐츠학과는 유튜브 공모전, 지자체 홍보 공모전 등 각종 콘텐츠 공모전에 도전해 우수한 성과를 거두고 있으며, 2021년부터 2026년까지 교육부·한국연구재단 지원 사업인 '디지털 신기술 인재양성 혁신공유대학'에 참여하며 국가의 신기술 혁신 인재를 양성하고 있다. /조경환 기자

확대비율: 100%

전주일보

2021년 9월 13일 월요일 004면 종합



전주대학교는 역사문화콘텐츠학과 오인교 학생이 '역사문화콘텐츠 연합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역사문화콘텐츠 연합경진대회 '최우수상'

전주대 오인교 학생, 안동의 독립운동가 삶 '야놀자' 방식 활용

전주대학교는 역사문화콘텐츠학과 오인교 학생이 최근 안동대학교 LINC+사업단과 경북콘텐츠진흥원이 공동으로 주최한 '역사문화콘텐츠 연합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번 경진대회는 주최 도시인 안동시의 지역 문화유산을 활용한 콘텐츠 제작을 통해 지역 홍보를 목적으로 열렸으며, 코로나19로 인해 예년에 비해 참가 대학과 참가자가 줄었음에도 그 열기는 더욱 뜨거웠다. 특히, 전주대 역사문화콘텐츠학과 오인교 학생(21학번)이 속한 대학연합팀은 "일제강점기 안동의 독립운동과 독립운동가의 삶을 광고 '야놀자' 방식을 활용해 재미와 감동을 주었다."라는 평가를 받았다.

최우수상을 받은 오인교 학생은 "2박

3일 동안 타 대학 학생들과 한 팀을 이뤄 안동의 독립운동을 알리는 콘텐츠를 제작하는 과정은 너무 힘들었지만, 독립을 위한 안동인의 활동을 영상에 담을 수 있어 값진 시간이었다."라고 말했다.

한편, 전주대학교 역사문화콘텐츠학과는 유튜브 공모전, 지자체 홍보 공모전 등 각종 콘텐츠 공모전에 도전해 우수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2021년부터 2026년까지 교육부·한국연구재단 지원 사업인 '디지털 신기술 인재양성 혁신공유대학'에 참여하며 국가의 신기술 혁신 인재를 양성하고 있다. /고병권 기자

확대비율: 100%

전주매일

2021년 9월 13일 월요일 005면 경제·사회



전주대, 역사문화콘텐츠 연합경진대회 수상

역사문화콘텐츠학과 오인교 학생 최우수상... 안동의 독립운동 주제

전주대학교 오인교 학생(역사문화콘텐츠학과)이 최근 안동대학교 LINC+사업단과 경북콘텐츠진흥원이 공동주최한 '역사문화콘텐츠 연합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경진대회는 주최 도시인 안동시의 지역 문화유산을 활용한 콘텐츠 제작을 통해 지역 홍보 목적으로 열렸다.

전주대 오인교 학생(21학번)이 속한 대학연합팀은 일제강점기 안동의 독립운동과 독립운동가의 삶을 광고 야

놀자' 방식을 활용해 재미와 감동을 줬다는 평가를 받았다.

오인교 학생은 "2박3일 동안 타 대학 학생들과 한 팀을 이뤄 안동의 독립운동을 알리는 콘텐츠를 제작하는 과정은 너무 힘들었지만, 독립을 위한 안동인의 활동을 영상에 담을 수 있어 값진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한편, 전주대학교 역사문화콘텐츠학과는 유튜브 공모전, 지자체 홍보 공모전 등 각종 콘텐츠 공모전에 도전해 우수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장은성기자

확대비율: 150%

전민일보

2021년 9월 13일 월요일 015면 사람

전주대 한국고전학연구소 ‘공존의 인간학’ 제6집 발간



전주대학교(총장 홍순직)가 한국고전학 연구소 HK+연구단 학술지 ‘공존의 인간학’ 제6집(사진)을 발간했다.

이번 제6집은 ‘동서양의 미적 가치와 인간’이라는 주제로 기획됐으며 미래 사회에서 지속 가능한 공동체 형성과 관련해 국내외 전문 연구자 투고한 기획논문 3편과 일반논문 3편이 엄격한 심사를 거쳐 수록됐다.

기획논문은 인간 고유의 가치인 미를 중심으로 동서양의 인식 체계를 밝히고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공동체와 관련된 대안을 모색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으며 일반논문은 인간학과 공동체라는 주제를 재정립하는 데 의미를 뒀다. 김영무기자

확대비율: 100%

새만금일보

2021년 9월 13일 월요일 002면 종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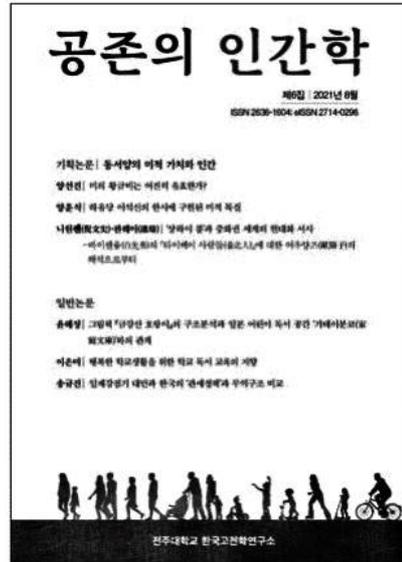
전주대 한국고전학연구소 '공존의 인간학' 제6집 발간

전주대학교 한국고전학연구소가 제6집으로 HK+연구단 학술지 '공존의 인간학'을 발간했다.

전주대학교에 따르면 이번 '공존의 인간학'은 공존의 인간학과 미래공동체 연구와 관련한 세계적인 수준의 담론 선도를 지향하며 탈유교사회의 인간학과 미래공동체에 대한 학제 간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지난 2019년 2월 28일 창간호를 시작으로 연 2회씩 발간해 이번 제6집이 출간됐다.

이번 '공존의 인간학' 제6집에서는 '동서양의 미적 가치와 인간'이라는 주제를 기획했다. 또한 미래 사회에서 지속 가능한 공동체 형성과 관련해 국내외 전문연구자가 논문을 투고했으며 기획논문 3편과 일반논문 3편, 총 6편의 논문이 엄격한 심사를 거쳐 수록됐다.

기획논문은 인간 고유의 가치인 미를 중심으로 동서양의 인식 체



계를 밝히고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공동체와 관련된 대안을 모색하는 데 중점을 뒀다. 철학, 한문학, 중문학 분야의 연구 성과도 수록됐다.

/염형섭 기자

전주매일

2021년 9월 13일 월요일 005
면 경제·사회



전주대 한국고전학연구소

‘공존의 인간학’ 제6집 발간

전주대학교 한국고전학연구소 HK+ 연구단은 학술지 ‘공존의 인간학’ 제6집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대학에 따르면 ‘공존의 인간학’은 ‘공존의 인간학과 미래공동체’ 연구와 관련한 세계적 수준의 담론 선도를 지향하며, 탈유교사회의 인간학과 미래공동체에 대한 학제 간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지난 2019년 2월 28일 창간호를 시작으로 연 2회 발간, 이번에 제6집이 출간됐다.

이번 ‘공존의 인간학’ 제6집에서는 ‘동서양의 미적 가치와 인간’이라는 주제를 기획했다. 특히 미래 사회에서 지속 가능한 공동체 형성과 관련한 국내외 전문 연구자가 논문을 투고했다. 이번 6집에는 기획논문 3편과 일반논문 3편 등 총 6편의 논문이 수록됐다.

기획논문은 인간 고유의 가치인 미를 중심으로 동서양의 인식 체계를 밝히고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공동체와 관련된 대안을 모색하는 데 중점을 뒀다. 철학, 한문학, 중문학 분야의 연구 성과도 실렸다.

일반논문은 인간학과 공동체라는 주제를 재정립하는 데 의미를 뒀다. 일문학, 교육학, 역사학 분야의 연구 성과가 수록됐다.

한편, 전주대 한국고전학연구소 HK+연구단은 2022년부터 학술지 발간을 1월 31일, 7월 31일로 변경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현재 ‘공존의 인간학’ 제7집(내년 1월 발간 예정)에 게재할 원고를 모집 중이다. /장은성 기자